

 국토교통부		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	 Donggu	보도자료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		담당자	배포일시	2020.9.25.(금) / 총5매(본문5)
				• 과장 황윤언, 서기관 박현근, 주무관 신동기	
				• ☎ (044)201-4904, 4908	
	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			• 과장 권영수, 팀장 권쌍용, 주무관 조일래	
				• ☎ (051)888-4203, 4204	
		부산시 동구청 도시전략재생과		• 과장 차재권, 계장 강남이, 주무관 김한나	
		LH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사업처		• ☎ (051)440-4283, 4284	
				• 처장 이상민, 부장 이재호, 차장 안치영	
				• ☎ (055)922-5021, 5022	
보도일시			2020년 9월 26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월 25일(금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영등포·대전에 이어… 부산 쪽방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

◇ 부산 동구 쪽방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단계적으로 정비

- 좌천역 주변 쪽방 밀집지역 **1단계**, 초량역 인근은 **2단계**로 순차 정비

◇ 좌천동 일원 주거취약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

- 쪽방 노후주거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425호 공급
- 순환형 임대주택, 인근 아파트 매입 등 임시이주시설 총 100호 마련
- 폐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·복지·교육 복합주민편의시설 조성

□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부산광역시(시장 권한대행 변성완), 동구청(구청장 최형욱)은 부산 동구청에서 9월 25일(금) ‘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
○ 이 사업에는 LH(사장 변창흠)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, 지자체-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.

□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, 빈집,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.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.

○ 특히,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, **세 번째**로 “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”을 발표하게 되었다.

< 부산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 >



○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,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**단계적**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 부산 지역 쪽방 분포도 >



< 부산 동구 쪽방 단계적 정비 >



-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**1단계**로 정비하고, 여관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**2단계**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**1단계**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* 뉴딜사업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

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쪽방 등 노후주거지 정비

-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.7만㎡에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호(공공분양 340호, 공공임대 85호)를 공급하게 된다.
-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, 사업비는 약 1.3천억 원이다.

< 사업계획도 >



< 조감도 >



* 사업계획은 수요 변동,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

② 先이주-善순환 대책 마련

- 주민들이 **내몰림 없이**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**이주공간**을 제공하는 **先이주-善순환** 대책도 시행한다.
- 이주공간은 **순환형임대주택**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**총 100호 규모**로 조성되어 先이주를 시행하고,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後에는 조성되는 **공공임대주택**에 재정착하게 된다.



순환형 임대주택 예시



폐교부지 활용 복합문화복지센터

③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

- '18년에 폐교된 구)좌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**문화·복지·교육·편의시설**과 **공원** 및 **공영주차장**을 **복합화**한 거점시설로 조성하여, 지역 내 부족한 **생활SOC**를 확충하고 **공동체 활동공간**으로 활용한다.

④ 안심 주거환경 조성

- 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하여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,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소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면서,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.

- 아울러,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, 부산시, 동구청, LH,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·관·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.



-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 한 후, '22년 착공 및 '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,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'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”이라면서,
- “지자체, 공공기관,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
재생정책과 박현근 서기관(☎ 044-201-4904), 신동기 주무관(☎ 044-201-4908)에게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